김 일 성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기 위하여

전세계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김 일 성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기 위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56년 12월 13일

동지들!

이번 전원회의에서 우리는 제1차 5개년계획의 첫해 과업인 1957년 인민경제계획에 대하여 토의하였으며 우리앞에 가로놓인 모든 난관과 시련을 용감하게 이겨내고 이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할데 대한 한결같은 결의를 다지였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당중앙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위원들 그리고 이 회의에 참가한 모든 동무들은 자기 초소에 돌아가서 전원회의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려야 할것이며 당앞에 다진 결의를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할것입니다.

많은 동무들이 토론한바와 같이 다음해에 우리가 수행하려는 인민경제계획은 매우 긴장된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 계획이 우리 힘으로 도저히 수행할수 없는것을 억지로 묶어놓은 그런 계획인가 하면 결코 그런것은 아닙니다. 이 계획은 우리가 얼마든지 수행할수 있는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모든 가능성과 조건들이 있습니다.

1957년 인민경제계획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에 기초하여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다음해에도 중공업부문에 투자를 집중하고 많은 힘을 돌릴것을 예견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옳은 조치입니다.

지금 일부 나라들에서는 중공업을 좀 죽이자거니 살리자거니 하는 론의가 많다고 하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이런 문제가 절대로 설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공업을 먼저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전반적 인민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할수 없으며 인민생활도 높일수 없기때문입니다.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객관적요구입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힘을 넣고있는 중공업부문들은 다 인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여있는것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화학공업에 힘을 넣어 비료를 많이 생산하지 않는다면 농업생산에서 정당 수확고를 높일수 없을것이며 그렇게 되면 인민들의 식량문제를 풀수 없을것입니다. 또한 화학공업을 빨리 발전시켜 화학섬유를 많이 얻어내야 인민들에게 옷감도 넉넉히 공급하여줄수 있을것입니다.

광업이나 다른 중공업부문들에 대하여서도 이

와 같은것을 말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광업부문에 힘을 넣어 더 많은 광물을 캐내지 않는다면 금속공업에 원료를 대줄수 없는것은 두말할것도 없고 외화를 많이 벌수 없으며 따라서 인민들의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여러가지 물건들을 사올수 없게 될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의 경제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며 인민들의 생활을 더 빨리 높일수 있도록 기계제작공업, 전기공업, 석탄공업, 광업, 화학공업을 비롯한 중공업부문들에 계속 많은 투자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해마다 인구가 매우 빨리 늘어나는 조건에서 인민들을 다 골고루 먹여살려야 하며 특히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그들의 생활을 높이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이런 형편에서 다음해에 중공업부문에 대한 투자의 비중을 올해보다 더 높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해에도 생산수단생산과 소비재생산의 비중을 적어도 올해와 같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생산수단생산과 소비재생산에서 지금 우리가 유지하고있는 비중이 오늘 우리 나라 공업발전수준에 알맞춤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해 계획을 수행하는데서 우리는 망설이거나 조금도 동요하여서는 안됩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다음해 계획은 우리가 잘 투쟁하면 얼마든지 할수 있고 또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될 계획입니다. 좀 힘들더라도 다음해 계획을 어김없이 해야 국가적으로 축적을 더 늘이고 예비를 마련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여야 우리가 1958년계획도 헐하게 할수 있고 정세의 변동에 따라 뜻하지 않았던 일이 생겨도 거기에 주동적으로 대처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해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투쟁은 비록 어려운 투쟁이기는 하지만 그대신 보람있고 영예로운 투쟁이라는것을 모든 동무들이 똑똑히 깨달아야 할것입니다.

지난 몇해동안 우리앞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난관이 가로놓여있었으나 우리는 긴장한 투쟁을 벌려 그것을 용감하게 이겨냈기때문에 3개년계획을 승리적으로 완수할수 있었습니다. 3개년계획을 완수한 결과 오늘 우리 인민은 자체의 힘으로 살아나갈수 있는 토대와 밑천을 가지게 되였으며 5개년계획과 같은 장기적이고 웅대한 전망계획을 세우고 그 수행에 달라붙을수 있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5개년계획의 첫해인 다음해에 벌써 공

업총생산액을 올해 예정실적보다 21％나 더 높일것을 예견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전인 1949년에 비하면 2.4배나 더 높은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3개년계획기간에 닦아놓은 튼튼한 토대와 밑천이 없다면 결코 이렇게 높은 목표를 내세울수 없으리라는것은 뻔합니다.

우리는 다음해 계획에서 인민들의 생활을 높이기 위한 많은 구체적인 조치들도 예견하였습니다. 바로 이 전원회의에서 우리는 다음해에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만들자, 상품의 질을 높이자, 알곡생산을 높일수 있도록 화학비료를 더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자, 물고기를 더 많이 잡기 위하여 배를 많이 만들자는것과 같은 흥미있는 문제들을 토의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여줍니까? 이것은 우리가 오늘에 와서는 이 모든것을 얼마든지 자체로 할수 있으리만큼 우리의 힘이 자랐고 밑천이 많아졌다는것을 말하여주는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큰 힘과 튼튼한 밑천을 가질수 있게 된것은 전적으로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로선이 옳았으며 당의 령도밑에 전체 인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투쟁하여 이 로선

을 훌륭히 관철하였기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3개년계획기간에 당의 방침대로 중공업발전에 힘을 넣지 않았더라면, 인민생활을 높인다고 하여 형제나라들의 원조 같은것도 그대로 다 때려먹었더라면 그때 한두해동안은 잘살수 있었을지 몰라도 오늘에 와서 아무것도 자체로 할수 없는 곤난한 처지에 놓이게 되였을것입니다.

지난 몇해동안에 우리가 푼전을 아껴가면서 기계공장들을 꾸려 방직기계들을 생산하고 방직공장들을 건설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아무리 비단옷을 해입고싶어도 해입을수 없을것이며 이 회의에서 비단천을 더 많이 생산하자는 결정을 받을수도 없을것입니다. 또한 이 기간에 우리가 튼튼한 기계공업기지를 꾸리지 않았더라면 오늘 아무리 물고기를 먹고싶어도 먹을수 없을것이며 안강망선을 몇척 만들어라, 운반선을 몇척 만들어라 하는 배생산계획 같은것도 척척 세워서 아래에 내려보낼수 없을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자체의 기계제작공업을 창설하고 중공업기지를 튼튼히 꾸려놓았기때문에 이번 전원회의에서 다음해에는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하고 필

요한 모든 문제를 마음대로 토의하고 결정할수 있게 되였으며 또 그 결정을 얼마든지 집행할수 있다는 굳은 신심을 가질수 있게 되였습니다. 다시 말하여 우리는 오늘 인민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필요한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고 결심할수 있게 되였으며 그 결심을 실현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 우리가 자기의 투쟁목표를 똑바로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하여 용감하게 그리고 빨리 달려나가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느린 걸음을 걸을수 없으며 남보다 몇배, 몇십배 더 빨리 달려나가야 합니다. 전후경제건설에서 우리가 이룩한 성과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만족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둔 성과는 어디까지나 초보적인것이고 앞으로 더 큰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토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의 전반적경제토대는 아직도 약하며 인민들의 생활수준도 높지 못합니다. 그뿐아니라 우리는 아직 우리 민족의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실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가하게 세월을 보낼수 있으며 느린 걸음으로 나갈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해이하거나 안일하게 지낼수 없으며 매일매시각 긴장한 투쟁을 벌려야 합니다.

더우기 지금 국내외정세는 그 어느때보다도 긴장하고 복잡합니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얼마전에 중근동에서 유태복고주의자들을 돌격대로 내세워 아랍인민들을 반대하는 야수적인 침략전쟁을 일으켰으며 웽그리아에서는 저들의 앞잡이들을 시켜 반정부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제국주의자들의 이 더러운 책동은 모두 수치스러운 실패로 끝나고말았습니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실패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에 도리여 이 두 사건을 계기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미친듯한 반공소동을 벌리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한편으로는 사회주의나라들을 악랄하게 비방중상하는 요란한 반공나발을 불어대고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나라들사이에 쐐기를 박고 사회주의진영을 안으로부터 허물어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있습니다. 그놈들은 틈만 있으면 사회주의나라들에 간첩들과 파괴암해분자들을 들여보내고있으며 군사적침략의 구실을 찾으려고 꾀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

리승만도당은 좋은 때를 만난듯이 미쳐날뛰면서 공화국북반부를 침략하기 위한 준비를 바삐 서두르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태평양함대를 우리 나라 령해가까이에 끌어들이고있으며 리승만도당은 여기에 발을 맞추어 이른바 《북벌》을 위한 군사행동을 할수 있도록 년말까지 모든 준비를 끝내라고 괴뢰군부대들에 명령하였다고 합니다.

놈들은 또한 공화국북반부에 남아있는 전복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과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을 저들의 전복음모에 리용하려 하고있습니다. 요즘 리승만도당은 이 한줌도 못되는 반혁명분자들을 향하여 매일같이 《너희들도 웽그리아에서처럼 폭동을 일으켜라, 그러면 우리가 다시 쳐들어가겠다.》고 내놓고 불어대고있습니다. 그뿐아니라 놈들은 수많은 간첩들을 공화국북반부에 들여보내여 우리 대렬안에 숨어있는 나쁜놈들과 한짝이 되여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를 반대하는 더러운 음모를 꾸미게 하려고 꾀하고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공화국북반부에 기여들고있는 간첩, 파괴암해분자들의 수가 요즘 훨씬 늘어나고있습니다.

한편 우리 대렬안에 숨어있는 계급적원쑤들과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은 미제와 리승만도당의 침략책동에 발을 맞추어 머리를 쳐들고있으며 우리 당과 우리 제도를 반대하여나서고있습니다.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은 우리 당에 의하여 이미 타격을 받았으나 아직도 계속 쏠라닥거리고있습니다. 이자들은 지금도 당의 간부정책을 이러쿵저러쿵 시비하고있으며 여러모로 당의 로선과 정책을 비방중상하고있습니다.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노리는 목적은 우리 당 중앙위원회에 대한 당원들과 인민들의 두터운 신임을 허물고 당의 통일과 단결을 마사보자는것이며 그렇게 하여 우리의 혁명위업을 파탄시켜보려는것입니다. 이자들이 들고나오는 여러가지 론조들을 분석하여보면 그것은 많은 점에서 리승만도당이 떠들어대는 론조와 신통히도 같습니다.

내외원쑤들의 이 모든 책동은 우리 당과 인민앞에 커다란 난관을 조성하고있으며 우리의 전진운동을 가로막고있습니다.

우리는 내외원쑤들의 온갖 책동에 대하여 경각성을 높여야 합니다. 물론 원쑤들이 아무리 갖은 책동을 다하여도 그것은 결국 실패를 면치 못하리라는것은 뻔합니다. 세련된 우리 당 중앙위원

회가 혁명을 령도하고있고 당과 인민대중이 하나로 통일되고 굳게 뭉쳐있는 한 미제와 리승만도당의 《북벌》계획도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음모책동도 결코 성공할수 없을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경각성을 늦추고 마음을 놓아도 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승리에 도취하고 경각성을 늦추며 우리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그때에는 사태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때에는 미제와 리승만도당이 실지로 쳐들어올수 있으며 우리의 혁명위업은 엄중한 난관에 부닥칠수 있습니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우리가 승리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담보는 우리 당의 강철같은 통일과 단결에 있습니다. 이것은 오랜 기간에 걸친 혁명투쟁과정에서 우리가 얻은 결론입니다.

우리는 당안에서 그 어떤 종파행위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한놈의 이색분자도 우리 대렬에 끼여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을 분렬시키고 로동계급을 분렬시키며 인민대중을 분렬시키려는 행동에 대하여서는 조금도 용서하지 말고 제때에 무자비하게 쳐야 합니다. 우리는 전당적으로 반종

파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며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당의 통일과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혁명적군중관점을 바로세우고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을 모두 우리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로동계급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의 계급의식을 높여주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을 높여주어야 그들이 어떤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자기 당과 자기 주권을 무조건 옹호하고 튼튼히 보위할수 있으며 인민대중속에서 선봉적역할을 놀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에서 혁명력량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과 함께 사회주의진영을 옹호하고 그 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여야 합니다.

우에서도 말하였지만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나 사회주의나라들을 서로 갈라놓고 사회주의진영의 위력을 약화시켜보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의 이런 교활한 리간책동에 속아넘어갈수 없습니다. 제국주

의자들이 리간책동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며 사회주의진영을 그 어느때보다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튼튼히 보위하여야 할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전진운동을 가로막는 계급적원쑤들에 대하여 경각성을 더욱 높이며 그와의 투쟁을 계속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지금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혁명임무를 수행하고있으며 치렬한 계급투쟁의 환경속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공화국북반부에는 아직도 우리한테 땅을 빼앗긴 지주들과 공장을 빼앗긴 자본가들 그리고 권력기관에서 쫓겨난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이 적지 않게 남아있습니다. 이와 함께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와 리승만도당의 간첩, 파괴암해분자들이 끊임없이 기여들고있습니다. 이놈들은 기회만 있으면 우리 혁명의 전취물을 파괴하고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을 파탄시키려 하며 우리 사회주의제도를 뒤집어엎고 옛착취제도를 복구하여보려고 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급적원쑤들의 동향을 늘 예리하게 살피며 그들이 우리를 반대하여 준동할 때에는 조금

도 타협하지 말고 단호히 법적제재를 가하여야 합니다. 지금 일부 일군들은 우리 당의 통일전선정책과 계급정책을 잘못 인식하여가지고 범죄행위를 저지른 나쁜놈들을 그대로 내버려두거나 그런놈들을 붙들어놓고도 법적제재를 가하기를 꺼려하고있는데 이것은 아주 위험한 현상입니다.

계급적원쑤들에게 자비심을 베푸는것은 혁명가의 태도가 아닙니다. 《준법성》이니 뭐니 하고 떠들어대는것은 우리 국가의 프로레타리아독재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한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책동입니다. 우리는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이러한 어리석은 책동을 철저히 짓부셔버려야 하며 계급적원쑤들과 타협하려는 온갖 시도를 반대하여 무자비하게 투쟁하여야 합니다. 특히 당일군들과 인민군대, 내무기관, 사법검찰기관 일군들속에서 이런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혁명력량의 강철같은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고 반혁명세력과의 투쟁을 강화하는 기초우에서 다음해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는데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를 조직동원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다음해에 우리가 점령하려는 목표는 매우 높은

목표이고 또 우리앞에 많은 난관이 가로놓여있는 것만큼 우리는 긴장한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당중앙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하여 이자리에 모인 동무들이 다 굳게 결의를 다지였다고 하더라도 광범한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키지 않고는 다음해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를 이룩할수 없습니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의 승패는 지휘성원들이 인민대중을 어떻게 조직동원하는가에 크게 달려있습니다. 동무들이 정치사업과 조직사업을 잘하여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이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한다면 우리에게는 이겨내지 못할 난관이 없을것이며 점령 못할 요새가 없을것입니다.

동무들은 돌아가서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 모든 로동자들과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이번 전원회의정신을 알려주고 그 관철에로 그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여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주의를 돌려야 할 문제는 내외원쑤들의 방해책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로골화되고 있는 조건에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에 대한 굳은 신심을 가지고

투쟁하도록 하는것입니다.

지금 각성되지 못한 일부 사람들은 《리승만이 또다시 쳐들어오겠다고 하는데 건설은 자꾸 해서 뭘하겠는가.》고 하면서 들떠서 일을 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좋지 못한 현상입니다. 우리는 로동자들과 모든 근로자들 속에서 해설사업을 잘하여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리승만이 《북벌》나발을 분다고 하여 겁날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는 적들이 《북벌》나발을 불면 불수록 사회주의를 더 잘 건설하여 그놈들에게 다시한번 본때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인민대중을 잘 교양하여 당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워야 하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로 떨쳐일어나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건설도 더 많이 하고 생산도 더 많이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구호는 《증산하고 절약하여 5개년계획을 기한전에 넘쳐 완수하자!》는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절약하여 다음해 계획을 완수하고 5개년계획을 기한전에 넘쳐 완수한다면 우리 나라의 경제토대는 훨씬 더 튼튼하여지고

인민생활도 빨리 높아질것이며 조국통일의 날도 그만큼 가까와질것입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증산과 절약의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혁신운동의 불길을 더욱 높여 새해에 들어서는 첫날부터 계획을 날마다, 달마다, 분기마다 어김없이 꼭꼭 넘쳐 완수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실로 우리 당과 우리 인민 앞에는 준엄한 시련이 가로놓여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련앞에서 주저앉을수 없으며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장엄한 전진운동을 조금도 멈출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의 령도밑에 국내외원쑤들의 파괴암해책동을 반대하는 전당적, 전군중적 투쟁을 벌리는 한편 앙양된 군중의 혁명적열의를 사회주의건설에 힘있게 조직동원함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반공소동과 리승만역도의 《북벌》소동 그리고 우리 내부에 숨어있는 계급적원쑤들과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책동을 산산이 짓부셔버려야 할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불굴의 혁명적기개를 다시한번 온 세상에 떨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